KIET

해외출장보고서

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10-17호

상품공동기금(CFC) 제46차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참가

-주동주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1.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실 주동주 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0. 7. 3 - 7. 11 (6박 8일)

3. 출장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4. 출장목적: 정부간 국제기구인 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의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위원으로서 제46차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참가

5. CFC 조직 개요 및 출장 업무 내용

- CFC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개발과 일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6월 UNCTAD 총회의 결의로 창설된 정부간 국제기구임 (실제 설립은 1989년).

- 2010년 1월 현재 106개 국가와 유럽공동체(EC), 아프리카연맹(AU) 등 10개 다자기구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음

※홈페이지 http://www.common-fund.org

- 동기구의 조직은 총회(Governing Council),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그리고 사무국(Secertariat)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국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총회는 전체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1년에 1회 정기 회의를 가짐.

  ○ 집행위원회(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28인의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CFC 운영과 관련된 일상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함.

  ○ 자문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CFC의 사업에 관해 집행위원회를 조언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함.

  ○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은 임기 2년으로 현재는 탄자니아 출신의 외교관(전 무역부장관, UN대사)인 Ali Mchumo임.

- 본인의 이번 출장 업무는 자문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정기회의(46차 정기회의) 참석이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요청해온 원조 사업을 검토하고 CFC의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일이 주업무였음.

6. 제 46차 자문위원회 회의 경과

- 7월 5일 Ali Mchumo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CFC 본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46차 정기회의가 개최됨.

- 자문위원회는 대륙별,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

남미, 유럽 등의 정부, 업계, 학계에서 대략 균등한 비율로 선정된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3차 회의에서 선정된 다음 임원이 2년 임기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감.

Chairperson: Mr. Gangan Boriah (India)
Vice-Chairperson: Mr. Hans Dieter Seibel (Germany)
Rapporteur: Ms. Paulette Lyons Dodd (Jamaica)
Vice-Rapporteur: Mr. Dong-Joo Joo (Republic of Korea)

- Ali Mchumo 사무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CFC의 2018-12년 5개년 지원계획의 실적을 설명하고, CFC 역할에 대한 최근의 국제자문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음.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다자간 국제금융기구들도 개발 지원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함.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는 일차산품 가격의 불안정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일차산품 가격 안정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하는 CF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현재의 자문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음.

- 이어서 Gangan Boriah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45차 자문위원회 의결 사항을 7월에 개최된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였음을 알림. 이후 본격적인 46차 회의 안건 심의에 들어감

-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국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개도국 원조 요청 사업 중 다음 5건을 선정하여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결정함.

우선순위	Project Code	Project Title

1	CFC/FIGMDP/20	Diversification of the Caribbean Livestock through the Production of Small Luminants, Jamaica
2	CFC/INBAR/09	South-South Initiative to Develop an Integrated Bamboo-bsed Development Alternative in Latin America
3	CFC/ICO/49/FA	Economic Crises and Commodity Dependent LDCs: Mapping Exposure to Market Volatility and Building Resilience to Future Crises
4	CFC/ITTO/81	Operational Supportive System for Promoting the Further Processing of Timber in Five Countires of the Congo Basin
5	CFC/FSCFT/29	Promotion of Processing and Marketing of Fresh Water Fish Products in Five Asian Countries

- 이밖에 다음 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승인 사업(Fast Track Projects)으로 사무총장이 조속히 승인하여 시행토록 건의함.

◆ Zinc Nutrition - Increased Crop Productivity and Nutritional Value (CFC/LZSG/20/FT)

- 회의 과정에서는 13인의 전문가가 특정 상품별로 각각 1차 Commenter, 2차 Commenter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합의제로 최종 결정을 내림. 본인은 Metals, Fish에 대해 1차 Commenter, Timber에 대해 2차 Commenter를 맡음.

7. 출장 성과 및 제언 (회의 성격과 포맷이 동일한 관계로 이전 출장보고서와 특별히 다른 내용 없음)

- CFC는 일차산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UN이 결의하여 만든 국제기구이나 미국, 캐나다 등이 개발도상국 주도에 반발해 가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납입자본금이 1억 7,800만 달러(2003년), 사무국 상근요원이 30여명 수준인 소규모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111만 달러(0.63%)를 출자하였음.

- 그러나 CFC가 지원하는 사업은 관련 개발도상국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들로서 각국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CFC의 지원금 그 자체는 소규모 액수이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종자돈(seed money)의 역할을 함.

- 자문위원회는 규정상 집행위원회에 조언하는 자문기구이나 실제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집행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일차 심의기구임.

- 따라서 각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FC 집행위원과 자문위원에 자국측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고 있음.

-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집행위원과 달리 자문위원은 국가 대표라는 개념이 아닌 전문가 개념으로 선정되긴 하나, 한국측 추천위원이 선임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됨.

- 한국은 향후 국제기여 확대를 통해 세계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바, 동기구와 같은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늘려나가야 할 것임.

- 특히 CFC와 같은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기구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미지 구축 효과가 큰 만큼, 개발도상국 전문가를 확보하여 향후로도 의사결정기구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큼.

- 동기구의 사업은 농림수산업과 광업 등 일차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일차산업의 제조업 연계를 통한 공업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업화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도 안건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함 (안건 제안자인 개도국 정부와 상품별 국제기구 등에 접촉).

- 이번 회의에서 본인은 일차 산업의 관계자는 아니나 장기간 개발도상국 문제를 연구해온 개발 전문가로서 토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러 안건의 적절한 평가와 선정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함.

- 이번 4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을 마치고 재구성됨. Ali Mchumo 사무총장은 본인의 활동을 특별히 치하하고 다음 번에도 연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에 이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자문위원은 한번의 연임이 가능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임원들을 연임시키고 있음.

Consultative Committee members, Taeje Lu (China) and Dong-Joo Joo (South Korea) evaluating the merits of recent proposals for project financing at the January meeting in Amsterdam. In 2010 South Korea will coordinate G-20 activities.

tive agreement could mobilize adequate funds for impact studies by coordinating commitments.

The value of any individual institution's activities or studies would be multiplied many times within a collective arrangement because such an agreement would:

- cluster studies around priority issues;
- ensure that studies are reliable and valid;
- create a register of on-going studies, which would offer both a means to widely disseminate results and a clearinghouse of data for reanalysis; and
- build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to undertake and communicate research.

This type of collective arrangement could be formed by creating a small council dedicated to promoting impact evaluations and having the capacity to conduct grant reviews, help coordinate projects, and provide catalytic funding to get evaluations started. Far from duplicating existing initiatives and networks, the council would fill a critical gap in the current portfolio of evaluation efforts.

Why Don't We Have More Impact Studie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agencies are responsible for designing, executing, monitoring, assessing, and reporting on programs. By and large, these activities are ongoing, must be conducted in-house to promote institutional learning, can be undertaken within standard budget and planning cycles, and are subjected to regular review and improvement.

But impact studies are different. For most organizations, they are not routinely done but instead are applied strategically to programs from which important knowledge can be gained. Impact evaluations do not have to be conducted in-house; in fact, their integrity, credibility, and quality are usually enhanced if they are external, independent, and undertaken by specialists in impact evaluation. They must be initiated when the right combination of factors arise, namely, an important policy question, the opportunity to integrate impact evaluation into a new or expanding program, and the active interest and collaboration of policymakers, funders, researchers, project managers, and beneficiaries. Typically, these factors coincide outside of normal budget and planning cycles.

Moreover, there are real disincentives for carrying out impact evaluations, including bureaucratic constraints. At all levels in organizations, managers who are concerned about potential budgets cuts or loss of prestige in the event of negative findings may set up obstacles to impact evaluations. Staff may be rewarded for focusing on rapid start-up and implementation rather than taking the time to conduct baseline studies and devote time and money to evaluation. Politicians who use social programs to gain electoral advantage may see little value in evidence about how effective the spending is in achieving long-term social goals.

continues on page 18 >

<CFC Newsletter - 2010. 4월호>